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부농 전남' 이끈다

도, 시설 정비에 전국 최대 규모 4775억원 투입
배수개선·농촌용수개발·방조제 개보수 등 추진

전남도는 농업시설 재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을 위해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전국 최대 규모인 477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1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비와 도비를 연계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과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사업은 배수개선사업 62지구 1237억원, 농촌용수 개발사업 5지구 217억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41지구 375억원,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지구 348억원 등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분기 중 대상 지구를 확정한다.

도비 지원사업은 803억원을 들여 밭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흙수로 구조물화 등 영농 편의를 높이고, 파손됐거나 시설기준에 미흡한 노후 저수지 시설물 보수·보강과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영농용수 공급 기반을 안정화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3207개소, 양·배수장 1067개소, 취입보 1666개소 등 총 1만 645개소다.

전남도와 시·군, 농어촌공사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정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 시설부터 순차 정비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재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영유아·임산부·난임부부 대상

전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24억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난임부부, 영유아에게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 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는 전남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4억4000만원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3000명을 지원한다.

신청을 바라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와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대상 사업은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500명을 지원한다.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가정보육)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7억2000만원으로 1500명을 지원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친환경농산물 전용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을 월 4회 이내(연 16회),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김치축제, 문광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2년간 국비 4000만원 확보…국제홍보·관광상품 개발

광주김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김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까지 2년 동안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외 홍보,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축제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린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는 총 5만7000여명이 방문했으며 10억5000여만원을 매축을 기록했다.

또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광주김치축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김치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것은 실질적 경제효과와 지역 상생의 가치를 동시에 입증한 결과"라며 "광주만의 고유한 김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천일염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26일 오후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천일염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천일염 가격 하락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14만3000명 방문 '역대 최다'
체험프로그램 운영·기획전시·관광 연계로 증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이 2025년 누적 방문객이 14만3000명으로 2008년 개관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섬진강에 서식하는 토종 생물과 수생태계를 주제로 한 상설 전시와 함께 매년 신규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정비를 병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관람 만족도를 끌어올린 점이 방문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획전시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생태관은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업해 '섬과 연안의 생명을 기록하다'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시를 오는 2월 23일까지 운영,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인근지역 대형 숙박시설과 연계한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홍보 전략을 추진한 점도 이번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관람객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08년 개관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섬진강 생태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는 차별화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사회복지인 "행정통합 추진 지지"
시도민 삶의 질 향상·복지서비스 균형 등 적극 협력키로
통합복지체계 필요성 강조…재정 지원·권한 이양도 촉구

광주·전남 사회복지인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와 광주사회복지사협회는 2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행정통합 지지 사회복지인 공동선언' 행사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균형적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과 회원 등 사회복지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통합 추진 경과 브리핑과 의견수렴, 공동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인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즉각 추진에 대한 지지 △주민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 △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통합 추진에 걸맞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복지·의료·돌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광역 단위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현장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인들의 지지는 행정통합 논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사회복지사협회는 1975년 설립 이후 전남 66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전문 직능단체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